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 근거이론적 접근*

홍승이** · 임성택***

이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신입생들이 입학 후 약 2개월 간 겪게 되는 전환 경험을 이해하고자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연구참여자들의 전환 경험을 개방코딩한 결과, 165개의 개념과 37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원인 조건으로 '성공적인 대학생 기준' 범주가 도출되었고, 맥락적 조건으로 '고등학교와 대학환경의 차이 인식' 범주가 나타났다. 중심 현상은 '전환 동기 형성'이었고 개입 조건으로는 '학과의 특성과 교수, 선배의 지원',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이 나타났다. 상호작용 전략은 '전환 정보 수집', '전환 모방', '개인적 전환 전략 수립'이었고, 최종적인 결과 범주로는 '달라진 대학생활에 대처'가 도출되었다. 선택코딩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는 '낯설지만 받아들인 세계, 새로운 도전'으로 요약되었다. 10개의 범주에 걸쳐 발견된 12개의 속성과 27개 차원을 면담 원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대학신입생들의 전환 경험은 주로 성공적인 대학생 기준, 학과의 특성, 주변의 지원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을 '나홀로 소극 전환형', '나홀로 적극 전환형', '더불어 적극 전환형', '더불어 적당히 동조형', '선별적 전환형', '표류형'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대학신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을 이해함에 있어 전환적 관점이 갖는 의의와 대학생활적응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대학신입생, 후기 청소년, 전환 경험, 근거이론, 대학생활적응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재구성함

** 제1저자 :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E-mail: hse99@kangwon.ac.kr

***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stlim@kangwon.ac.kr

I.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동안 평범한 변화와 평범하지 않은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 주요 과업 중 하나인 대학 진학은 고등학교 때까지 유사한 학제 내에서 경험하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대전환의 시기를 제공한다. 졸업과 입학에 의해 이전의 학교학습 및 생활환경을 떠나 대학이라는 낯선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대학신입생들에게 첫 학기는, 평범하지 않은 전환기적 변화의 시점이며 학업, 인간관계, 생활면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됨'은 단순히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학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대학입학이라는 사건은 신입생들에게 이전 세계와의 현격한 차이에 직면하여 새로운 학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전환 과정을 겪게 한다.

전환(轉換, transition)이란 이전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방향이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정동영, 2014; 조운경, 2003; 홍영숙, 2016; Adams & Spencer, 1988; Brammer, 1991), 발달적 연령에 의한 수직적 전환과 생활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수평적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으로의 진학은 수직적 전환에 해당하며 대학진학으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도시로 이전하여 살게 되는 것은 수평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은 대부분 수평적 전환을 동반하지 않은 수직적 전환이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전환은 수직적 전환과 수평적 전환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전환기(transition period)에는 이전 생활의 마무리(ending)와 아직 이전 역할과 이전 일상생활이 남아 있는 중립적 상태(neutral zone),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작(beginning)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방향과 혼돈이 발생하기도 한다(Bridge, 2004). 신입생들이 대학 환경과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려면 전환의 각 영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생활과 경험이 어떠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하거나 대학 수준의 학업을 수행할만한 학문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 수업에 임하게 되는 신입생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류혜숙·조형숙, 2008; 전보라·윤소정, 2017; Balduf, 2009; Briggs, Clark, & Hall, 2012; Tinnesz, Ahuna, & Kiener, 2006).

서구 고등학생들에 비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적 경험에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대학 입시의 경우, 대학의 규모, 설립 목적, 지역사회적 특성에 따라 전형 자료가 다양하고, 다양한 선발 기준이 적용되는 특별전형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김복영, 1999), 우리나라에 비해 암기식, 주입식 시험공부에 대한 수험생 부담이 덜 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교육 이후 복선형 학제를 도입하고 있어 어떠한 학교교육과정을 거쳤더라도 자신의 능력 수준에 맞는 중등교육을 수료한 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입학의 자격을 얻은 학생들은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정영근, 1999). 뉴질랜드나 영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학과 취업을 위한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필수과목 이외의 옵션과목들은 학생이 직접 계획을 짜게 된다. 따라서 한국식 고등학교 교육처럼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과 분야에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의 특권을 인정해준다(김송희, 2012).

반면, '고등학생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메시지는 고3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자율적 판단을 유보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것'을 강요하다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갑자기 전환된다.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규범준수의 범위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자율적인 규제로 변화되어 타율적인 방식에 익숙해져 온 고등학생들에게 생활, 학업, 인간관계에서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대학생답게'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고등학교까지는 교육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위주의 수업, 분과적인 교과 중심, 단일 교과, 수능 대비 교육 내용, 암기식 및 주입식 시험대비와 평가방식에 길들여져 있었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자유로운 교육과정, 전공별로 다양한 학점 이수, 범교과적·통합적·간학문적 수업 내용, 다양한 평가 방식,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필요한 학습 환경 처하게 되기(이길상, 2000)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신입생들은 대학생으로의 전환기에 두 학제 간 교육 문화적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으로 수직적 전환을 하였을 때 대학에서의 학업, 사회적 관계, 생활면에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많고 이전 전환 경험과의 유사성이 적어서 입학 후 직접 전환과 맞닥뜨리기 전까지 그 과정과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수평적 전환까지 더해진다면 이전 전환 경험과의 유사성이 더욱 적어 전환의 과업 수는 그만큼 많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등학교와 대학 간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대학신입생들의 전환 경험은 우리나라 교육 연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보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격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미권에서는 대학생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대학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Briggs et al., 2012; Brown & Adam, 2010; Cherif & Wideen, 1992; Lizzio, 2006; Marland, 2003; Nair & Fisher, 2000; Smith & Wertlieb, 2005; Upcraft, Gardner, & Barefoot, 200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입학 인구 감소와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신입생에 대한 연구가 이전보다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2009년부터 매년 1편씩, 2012년부터는 매년 5~6편으로 증가하고 있다(유경희·김중경, 2016). 그러나 대학신입생에 대한 논문들은 주로 연구 시점에서 신입생들이 대학에 적응하고 있는 수준이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을 뿐 대학입학 후 대학생으로의 전환의 관점에서 탐구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홍송이, 2018). 대학생으로의 전환기에 놓여진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대학입학 후 첫 학기에 가장 두드러진다고 한다(Wilcox, Winn, & Fyvie-Gauldet, 2005).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대학생들이 대학에 좀 더 쉽게 적응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적응하고 있다, 혹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진단적 접근이 아닌, 적응을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며 아직 적응이 되지 못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환의 관점에서 신입생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홍송이 · 임성택, 2018).

대학신입생들의 전환 경험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 과정이다. 홍송이와 임성택(2018)은 후기 청소년들의 대학생으로의 전환기인 첫 학기 주요 사건을 기점으로 전환 경험의 중단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시기별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대학입학과 중간고사까지 약 2개월간 전환경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새 학기 대학생활에서의 변화에 대처하는 신입생들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근거이론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특정 현상에 대한 개념적 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관련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 행동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그 자체에 근거를 둔 이론을 찾고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접근법이다(이동성 · 김영천, 2012; Bryant & Charmaz, 2010; Charmaz, 2000; Creswell, 2015; Glaser & Strauss, 2011; Strauss & Corbin, 2001). 이에 연구의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대학입학 후 두 달 여간 낯선 곳에서 대학생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신입생의 입장에서 삶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의 유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근거이론 방법에서 제안하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적용하였고, 표집과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반복하면서 충분히 포화된 이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Charmaz, 2013; Creswell, 2015; Morse, 2010; Strauss & Corbin, 2001). Creswell(2015)은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이론적 표집을 권장하였기에, 이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32명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중 남학생은 12명, 여학생 20명이었다. 전공별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은 12명, 자연계열은 19명, 예체능은 1명이었고, 대학입학 후 지방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동하여 생활하게 된 학생은 6명,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로 이동하게 된

학생은 4명,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로 이동하게 된 학생은 9명이었다. 연령은 모두 만19세에서 20세였다.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는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가명	성별	계열	입학 후 생활공간 이동	가명	성별	계열	입학 후 생활공간 이동		
1	강진성	남	인문	중소도시 → 대도시	17	김연경	여	자연	중소도시 → 대도시
2	권희성	남	자연	중소도시 → 대도시	18	김유경	여	인문	중소도시 → 대도시
3	권주성	남	인문	-	19	김재경	여	자연	-
4	김기성	남	인문	-	20	문은경	여	자연	-
5	김유성	남	자연	대도시 → 중소도시	21	박채경	여	자연	-
6	박재성	남	자연	대도시 → 중소도시	22	박현경	여	인문	-
7	박현성	남	인문	대도시 → 중소도시	23	박수경	여	인문	중소도시 → 중소도시
8	안지성	남	자연	-	24	송주경	여	자연	-
9	이해성	남	자연	중소도시 → 중소도시	25	서희경	여	자연	중소도시 → 중소도시
10	이종성	남	자연	-	26	이예경	여	자연	중소도시 → 중소도시
11	한경성	남	자연	-	27	이자경	여	자연	-
12	황채성	여	자연	중소도시 → 중소도시	28	임선경	여	자연	-
13	강세경	여	예술	중소도시 → 대도시	29	최도경	여	인문	-
14	고준경	여	인문	중소도시 → 중소도시	30	최영경	여	자연	중소도시 → 중소도시
15	권진경	여	인문	중소도시 → 중소도시	31	한효경	여	자연	중소도시 → 중소도시
16	김미경	여	인문	대도시 → 중소도시	32	홍혜경	여	인문	중소도시 → 대도시

2. 자료수집

자료수집에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질문은 내용타당도를 보강하기 위해 대학신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에 대한 문헌 고찰과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대학신입생의 전환 영역을 학업, 인간관계, 생활면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 변화 과정과 관련된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월 초까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쓰는 용어 및 대학신입생들이 입학 후 겪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면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신입생 시절을 되돌아보며 전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사와 문제점, 대학 적응에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개방형 의견조사 기술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유 담화 방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1, 2학년 재학생 5

명이었으며, 개방형 기술지 작성에 참여한 학생은 3, 4학년 6명이었다. 예비조사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면담의 가이드라인은 표 2와 같으며, 면담이 진행되면서 연구참여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질문을 병행하였다.

〈표 2〉 예비조사 내용 및 면담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예비조사 (재학생 11명)	자유 담화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으로서의 학문적, 사회적 기대와 가치 • 신입생 시절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었던 경험 • 고등학교 때와 비교한 대학생으로서의 삶 •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17학년 새내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개방형 기술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학업면, 인간관계면, 생활면)
면담 (신입생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전 대학에 대한 기대 혹은 걱정(입학 후 달라진 것) • 전환과 관련하여 인상적이었던 사건 • 학업, 인간관계, 대학 생활에서의 긍정/부정적이었던 경험 • 중간고사 준비 과정과 시험 경험,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면담은 중간고사가 끝난 4월 말과 5월 초에 진행하였으며, 이는 대학입학에서 1학기 중간고사까지의 경험이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면담 시간은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였다. 면담 2주일 전에 참여하기 편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전화와 문자로 약속하였으며 면담에 대한 사례(다과와 문화상품권)가 주어 진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 및 면담 내용의 활용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면담 과정이 녹취된다는 점과 문서화된다는 점, 면담 결과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로써 면담에 윤리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해 줄 것임을 서약 및 서명하였고, 연구자 역시 비밀유지를 준수하고 윤리적이고 성실하게 연구에 임할 것임을 서약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연구자의 휴대폰으로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개념이나 새로운 질문 등은 메모를 하여 정리함으로써 이론적 민감성을 키우고 적절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녹음을 종료하고 인터뷰에 참가한 소감 위주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때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경우 별도의 메모를 통해 기록해두었으며 필요할 시에는 추가 녹음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근거이론을 활용한 분석방법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자료를 줄 단위로 읽고 분석하면서 나타나는 의미단위를 개념화시키는 줄단위 분석과 연구자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개념 및 생각을 기록하는 메모하기를 결합하여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선택, 분리, 정렬하여 개념화시키고, 추상적인 의미덩어리(범주)로 나누며 개념과 범주를 서로 비교하면서 패러다임의 틀과 핵심 범주를 도출하게 된다(이동성 · 김영천, 2012; Charmaz, 2013; Creswell, 2015; Kelle, 2010). 개방코딩을 위해 원 자료와 정리된 개념들을 오고가며 세세히 분석하였고, 공통적이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대학생으로의 전환의 주요 특징에 주목하여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반복적 비교방법을 통해 첨가되거나 수정된 개념들은 주요 범주별로 묶어 이를 명명할 수 있는 좀 더 상위개념으로 분류하였다.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은 축코딩을 위해 재조합하여 중심현상(central phenomena)의 축을 중심으로 각각 원인 조건(또는 인과 조건, caus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context conditions), 개입 조건(또는 중재적 조건, intervening conditions), 중심 현상, 상호작용 전략(또는 작용 상호작용 전략, action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결과(consequences)의 패러다임으로 시각화하였고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분류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축코딩 결과로 나타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범주를 기술하였으며, 축코딩에서 도출된 속성과 차원을 원자료와 비교한 후 핵심 범주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의 투명성, 체계성, 증거충실성(Yin, 2013)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비조사를 포함한 연구 설계와 절차를 자세히 기술하였고, 자료 수집 절차와 분석 과정을 공개하였으며, 원 자료를 연구 결과에 직접 인용하여 분석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면담에서의 연구자의 필사본, 메모, 각종 기술지, 녹음 자료, 전사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절차의 체계성을 추구하기 위해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관련 문헌 검토와 다양한 방법의 예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았다. 연구내용의 체계성을 위해서는 연구 및 자료 분석이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학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선정하여 분석 과정과 결과를 검토 받았다. 질적 연구 지도와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 동료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연구 주제 및 연구 절차,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검토를 받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타당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 자신이 질적 분석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수업과 ‘질적연구방법론 세미나’, ‘근거이론 방법 집중 워크숍’에 참석하여 이론과 실습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증거 충실성을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들이 신빙성과 정확성을 갖출 수 있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으며, 면담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별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Ⅲ. 면담 자료 분석 결과

1. 개방코딩(open coding) 결과 : 개념과 범주화

대학신입생의 입학 후 두 달 여 간의 전환 경험을 개방코딩한 결과, <표 3>과 같이 165개의 개념과 37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3>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 개방코딩 결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싶음, 자기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람	자기결정성	성공적인 대학생 기준
인간관계도 좋고 성적도 좋은 대학생,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대학생,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학생, 1학년 때부터 학점을 잘 챙기고 싶음	대학생으로서의 목표 설정	
무엇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고 싶음, 나만의 주관이 필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는 대학생	독립심	
고등학교 때 비해 교수님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지 않음,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전공 용어와 개념 학습이 필요함, 고등학교 때보다 수업시간에 통제를 덜 받지만 진도는 빨리 나감	어려워진 수업	고등학교와 대학환경의 차이 인식
대학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짐, 잘 모르는 사람과 한 조가 되어 과제를 해야 함, 시험에 나올 내용을 적어주거나 문제풀이를 해주지 않음	낮선 과제와 시험 대비	
고등학교 때와 달리 수업 선택을 위한 정보 필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필요	정보 필요	
남중남고(여중여고)를 나와서 이성과 같은 캠퍼스에 있다는 것이 신기함 (불편함), 이성친구와 사귀게 됨, 표면적 인간관계를 느낌, 수업, 상담 등의 상황에서 교수님들을 만남, 학과, 동아리 등에서 선배들과 처음 만나게 됨	대학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	고등학교와 대학환경의 차이 인식
부모님의 간섭이 줄어들,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보다 나를 믿어주심	부모님의 신뢰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원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음, 수업 사이에 공강 시간이 생김, 고등학교 때 비해 자유 시간이 많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됨, 시간표가 뒤죽박죽이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짐	자유로워진 생활	
생활 물가가 비싸다는 게 느껴짐, 어디에 쓰는지 모르면서 돈이 계속 나감, 회비, 술값, 밥값, 화장품비, 옷값 등에서 지출이 많아짐,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커짐, 학교 밖 밥값이 비싸지만 사먹게 됨	늘어난 지출	
내용이 어려워 교수님의 설명을 잘 못 알아들음, 과제 수행이 어려움, 학업에서 한계를 느낌, 학점을 위해 교수님(평가자)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지만 기준 파악이 쉽지 않음, 인간관계 맺기가 어렵게 느껴짐, 대학에	대학생활의 어려움 실감	전환 동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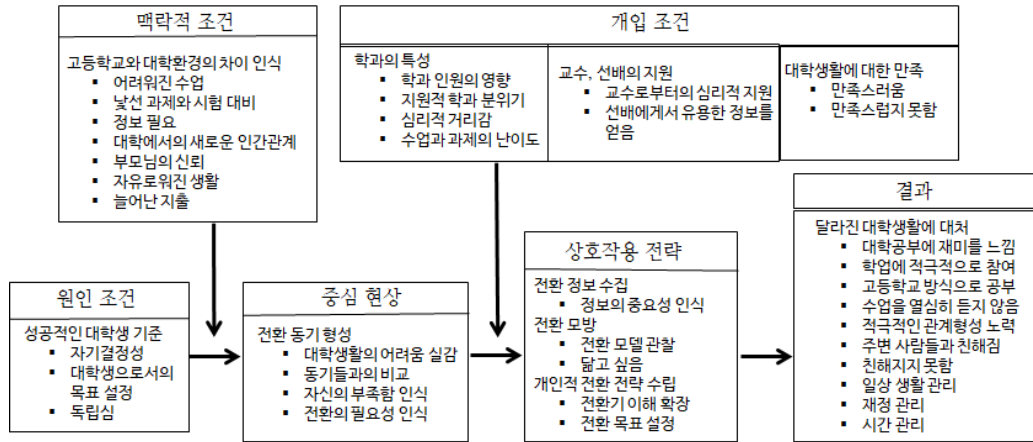
개념	하위범주	범주
서의 만남은 표면적 인간관계라는 생각을 하게 됨, 학교 다녀오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 낯선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기가 힘들, 아무도 없이 불 꺼진 기숙사 방에 혼자 들어올 때 외로움, 시험기간에 혼자 공부하다 외로움을 느낌, 용돈 대출을 받으면서 좀 더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음	대학생활의 어려움 실감	전환 동기 형성
동기들과 학업 수준과 실력에서 차이를 느낌, 빈부의 차이를 느낌, 나와 생각과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됨, 고등학교 때는 성적에서 비교를 많이 당했으나 대학에서는 사회성에서 많이 비교되는 것 같음	동기들과의 비교	
기초교과목 학습이 부족함을 느낌, 지역적 한계로 인해 선수과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음을 알게 됨,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수업 시간에 줄게 됨, 정신적 스트레스, 뭔가 놓치고 있는 느낌, 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 게으름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 운동은 안 하고 맨날 먹고 자고 해서 몸 관리를 못한 것 같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행 압력들을 인식하게 됨, 대학 적응을 위해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위한 변화 필요	전환의 필요성 인식	
학과 인원이 적어서 행동이 조심스러움, 학과 인원이 적어서 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학부제로 입학하여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동기의 느낌이 들지 않음	학과 인원의 영향	학과의 특성
동기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냄, 서로 도와주면서 경쟁하는 분위기, 1학기에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가 많아서 참석해야 할 일이 많음, 동기들끼리 단합된 분위기	지원적 학과 분위기	
동기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친해지기 힘들고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 모임이나 행사가 별로 없어서 자주 모이지 못함	심리적 거리감	
고등학교 때 배운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시험 방식이 고등학교 때와 비슷함, 교양과목 위주의 강의식 수업, 토론식 수업, 창의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험, 과제가 많음(과제가 없음),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열심히 노는 분위기, 1학년 때부터 모두들 열심히 공부해서 생각보다 놀 시간이 없음	수업과 과제의 난이도	
신입생 세미나에서 교수와 상담을 했을 때 고민을 말할 수 있었고 푸근함을 느낌, 대학교수가 무조건 딱딱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됨, 교수들마다 친근함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됨, 자주 교수를 만나면서 학업에 도움을 받음	교수로부터의 심리적 지원	교수, 선배의 지원
선배로부터 꿀교양에 대한 정보를 얻음, 다음 학기 수업 정보를 들음,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음, 군복무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들음, 선배로부터 시험 정보, 시험 족보를 전해 받음, 선배와의 적절한 관계가 필요함을 알게 됨, 선배들이 1학년이니까 놀아도 된다고 함, 선배들이 조별과제 하는 것을 보며 학습에 흥미를 느낌, 선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함, 과제에 도움을 받는 동기를 보며 부러워함	선배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음	

개념	하위범주	범주
매우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와서 행복함, 대학생살을 진심으로 즐기면서 바쁘게 살아감	만족스러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성적에 맞춰 입학함, 학교에 불만족, 대학생살이 재미 없음, 기대와 다른 대학 생활,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 공부와 시험 문제	만족스럽지 못함	
대학입학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선수과목, 근로장학생, 알바 정보 등)이 많음을 알게 됨,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답답함,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상황별 변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	정보의 중요성 인식	전환 정보 수집
놀기도 잘 하면서 성적도 잘 나오는 동기나 선배에 대한 부러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동기가 멋있어 보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음	전환 모델 관찰	전환 모방
주변에 성공적으로 전환한 선배나 동기를 보며 닮고 싶음, 처음엔 아무 생각 없다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다양한 전환 사례들을 보며 따라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여줌	닮고 싶음	
자유를 누리면서 불안, 고등학교에 비해 규제의 틀이 없어서 불안, 목표의식 상실, 이렇게 놀아도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음, 어느 정도의 규율을 원함, 스스로 틀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움, 1학년 1학기는 전환 연습 기간, 시행착오가 허용되는 기간(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기회), 1학년 1학기라고 해서 막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1학년 1학기에는 좀 놀아도 된다고 생각(주변에서 다 놀기 때문에 나도 놀아도 된다고 생각), 1학년 땀 좀 흘리고 군대에 다녀와서 열심히 할 것, 무언가를 선택하고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대학생으로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우는 시기	전환기 (1학년 1학기) 이해 확장	개인적 전환 전략 수립
나만의 독특성을 찾고 싶음,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싶음(개성 있는 전환),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싶음, 전환에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자발적 전환), 우선순위에 의해 필요한 전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선택적 전환), 시행착오의 중요성 인식,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경험적 전환), 놀면서 틈틈이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함(균형 잡힌 전환)	전환 목표 설정	
대학수업에 흥미를 느낌, 대학 공부가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음, 고등학교 수업보다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게 됨,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감을 잡음, 수업시간에 맞춰 찾아다니는 일에 익숙해짐	대학공부에 재미를 느낌	
힘들어서 못 끝낼 것 같았는데 오기가 생겨서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함,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 키우기를 위해 노력함,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경쟁도 하고 공부를 도와주는 경험을 함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달라진 대학생활에 대처
단순 암기, 벼락치기 등의 고등학교 때까지의 학습 습관 적용, 시험 공부 전략 부재, 시험 하루 전날 밤샘 공부를 함, 학점의 의미를 잘 모름	고등학교 방식 공부	

개념	하위범주	범주
출책(출석 체크)만 하고 나옴, 수업을 잘 안 듣고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함, 1교시 수업 후 피곤해서 기숙사에서 쉬다 7, 8교시 수업은 못 감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음	달라진 대학생활에 대처
사람들과 4년 동안 잘 지내야하므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대학은 사회의 축소판이므로 인간관계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 룸메이트와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서로 조율하게 됨, 중앙동아리에 가입하여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노력	적극적인 관계형성 노력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됨, 같은 과잡을 입으면서 소속감을 느낌, 동지의식, 학과 행사에서 동기들과 어색함을 없애고 친해짐, 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교류	사람들과 친해짐	
고등학교 때 비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함	친해지지 못함	
청소와 빨래하는 요령을 익힘, 잠이 많은 편이라 항상 엄마가 깨워줬지만 지금은 알람 없이도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됨, 변화에 익숙해짐,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음	일상생활 관리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게 됨, 근로장학생 활동을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뿌듯함을 느낌, 돈을 절약해서 씀, 부족한 용돈을 규모 있게 쓰려고 노력	재정 관리	
대학 축제에 참여하여 캠퍼스를 만끽함, 공강 시간에 동기들과 학교 근처로 놀러 다님, 공강 시간에 기숙사에 가서 잠을 잠, 밤늦게 혹은 아침에 기숙사 들어가기	시간 관리	

2. 축코딩(axial coding) 결과 :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대학신입생들이 입학 후 두 달 여 기간 동안 겪게 된 전환 경험을 축코딩한 결과, 원인 조건은 '성공적인 대학생 기준' 이었고, 이러한 원인 조건이 중심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맥락적 조건은 '고등학교와 대학환경의 차이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현상은 '전환 동기 형성'이었으며, 중심 현상에 개입하게 되는 조건은 '학과의 특성'과 '교수, 선배의 지원',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이었다. 개입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전환 정보 수집', '전환 모방', '개인적 전환 전략 수립'이었다. 최종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전환 행동은 '달라진 대학생활에 대처'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에 따른 축코딩 결과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 패러다임

1) 원인 조건

원인 조건은 중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원인 조건은 ‘성공적인 대학생 기준’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가고 싶어 하였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심을 가지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대학생활은 자유롭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거를 거절할 수 있는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성라희, 여, 사례 25)

뭔가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인간관계도 좋고 성적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송주경, 여, 사례 24)

저는 혼자 하는 걸 못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좀 해보면서 대학생활 하면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경, 여, 사례 23).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의 속성을 의미한다. 대학입학한 후 신입생들이 달라진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전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 ‘고등학교와 대학환경의 차이 인식’이 대학신입생의 전환 경험에서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입학 후 연구참여자들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변화를 해석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과업과 마주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

익숙했던 신입생들은 대학 수업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구성 방식, 수업의 목표, 교수의 설명 방식이나 과제의 형태, 시험이나 평가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관계의 면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만남이 종류와 횟수가 제한되었던 만큼 대학입학 후 다양한 지역,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등학교 때와의 차이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선배나 교수와의 만남은 학업에 충실하고 대학생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깨닫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엿한 대학생임을 인정받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낮선 도시, 낮선 장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하는 낮선 일상 속에 놓여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신입생들에게 자율과 책임이라는 양날의 검을 인식하게 하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전환과 그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학업, 인간관계, 일상생활에서의 전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각 영역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책이나 문제집에 선생님이 줄 치고 그런 수업이었는데 대학교는 특별한 문제집도 없고 그냥 교수님이 말하면 노트에 필기 및 정리해야 하는 수업이 많아서 그런 게 차이점이라고 느껴요. (박현성, 남, 사례 7)

고등학교 때랑 완전 달라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사교육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냥 이게 답이야 이렇게 떠먹여주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대학은 일단 범위도 광범위한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감이 안 와요. (김미경, 여, 사례 16)

고등학교 때는요, 선배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대학교 때는 같은 과 선배가 많이 만날 일도 많아서 그런 게 크게 와 닿았어요. 선배라는 개념이요. 고등학교 때는 선배 얼굴도 모르는데.. 대학에서는 선배도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박현성, 남, 사례 7)

교수님이란 단어 자체도 어렵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학교 안에 엄마 이런 느낌이었는데 교수님은 교수님 같아요. 뭔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똑똑하시고 그런 거는 느껴지는데 뭐 살짝.. 정에 관한 거는.. 친해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좋은 분들이신 건 알겠는데 가까워지는 게 어려워요. 다가가는 좀.. (고준경, 여, 사례 14)

집에서도 고등학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으로 인정해주고 기대하고 맡기고 그런 것도 느껴져요. 이제 거의 간섭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율적으로..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잘 해야 된다는.. (권희성, 남, 사례 2)

고등학교 때는 맨날 교실에만 박혀 있어서 주말에도 어디 딱히 가지도 못하고 그랬

는데.. 대학에 와서는 수업도 째고 제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으니 그게 좋았어요. 좋으면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렇긴 하죠.. (안지성, 남, 사례 8)

3)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연구의 주제가 되는 행동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결과의 방향이 제시된다.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에서 중심 현상은 '전환 동기 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보다 다양해진 만남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서로의 경험의 차이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발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활비 관리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정 관리를 잘 하고 싶다는 동기가 형성되었다. 지출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와는 달라진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주위에 다양한 개성을 지닌 학생들이 많다보니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옷 등으로 그간 표출하지 못했던,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었다. 아끼자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더 벌어서 자신에게 좀 더 투자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제가 어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안 사고 쓰고 화장품 같은 거 떨어져도 굶어 쓰거나 아예 안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나 있다가 없어 그러면 사자.. 이려고.. 뭔가 편한 게 더 중요해지고..전보다.. 묶여 있다가 풀렸으니까..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실감하고 싶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더 투자하게 되고 나한테 더 집중하게 되고.. (이예경, 여, 사례 26)

근데 누가 하라고 하진 않지만 필요성은 제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필요성을 느껴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숙제검사 하듯이 체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 스스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화에도 나만의 방식을 찾아서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공부와 취업에도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려고 하고 남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게 생각해보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런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박현성, 남, 사례 7)

4) 개입 조건

개입 조건은 중심 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 전략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코딩 결과, 개입 조건은 '학과의 특성'

과 ‘교수, 선배의 지원’,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전환들은 입학하게 된 학과의 학생 수와 학과의 분위기 등 학과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너무 적을 경우 참여를 원하지 않는 행사가 있어도 빠지기 어려웠다. 학과 전체 분위기가 학구적이어서 노는 것보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 동기들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을 느껴야했던 사례도 있었다. 학과가 단합이 잘 되고 신입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등 지원적인 분위기일 때는 신입생들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임이 별로 없거나 학과의 분위기가 그다지 지원적이지 않았던 연구참여자들은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학과나 동아리 선배와의 교류는 다방면에서 대학생활 전환에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과목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시험 정보, 심지어 아르바이트 정보나 장학금과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된 두 달 여의 시간 동안 자신의 학과에 만족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점수에 맞춰 지원하였지만 대학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잘 지내는 신입생들도 있었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진학을 결정하였지만 기대와 다른 대학생활에 실망하여 학교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학과 인원이 작으면 오히려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한 명만 빠져도 뭔가가 안 되고 하나까.. 집단 압력이 좀 있겠쥬. 뭔가 이렇게 선배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뭔가 이렇게 해야지 가야지.. 하는게 있어요. (박수경, 여, 사례 23)

그런 게 좋아요. 정보를 얻고 미리 아는 거.. 선배를 미리 만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조금 더 적응에 속도가 느리쥬. 저희는 다 알고 있는 걸 이제 알아가니까.. (권가영, 여, 사례 14)

저는 일단 이 여유, 마음에서의 여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원하는 대학이고 원하는 학과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박현경, 여, 사례 22)

대학 지원을 할 때 어떤 공부를 하는 학과인지 잘 모르고 점수에 맞춰서 갔어요. 만일 2월로 돌린다면 저는 다른 과 가고 싶어요. 더 재미있는 과가 많아 보여요. 다른 애들은 다 재밌어 보이는데.. 그니까 수시 쓸 때.. 작년으로 돌려야 돼요. (최도경, 여, 사례 28)

5) 상호작용 전략

상호작용 전략은 중심 현상의 행위자들이 현상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 정보 수집’, ‘전환 모방’, ‘개인적 전환 전략 수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활에 유용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주변 선배나 동기들을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전환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1학년 1학기라는 전환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전환 경험과 시도를 통해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자 다짐하였다. 신입생들이 바라는 전환 목표는 자신만의 독특성을 찾을 수 있는 전환,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자의에 의한 전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순위에 의해 필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 등이었다.

사람들을 잘 이끌고 리더십이 있어요. 대학생활을 진심으로 즐겨요. 동아리도 몇 개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요. 저도 바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놀기 바빴지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단 말이예요. 근데 그분은 선뎨데 항상 하는 일마다 리더인거예요. 잘 이끌고, 말도 잘 하고 장학금도 받고.. 모든 대학생활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예요. (홍혜경, 여, 사례 32)

전환을 잘 하기 위해, 성공적인 전환이 되려면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고, 주변 분위기도 이것저것 하는 분위기면 좋겠죠. 뭐든 시도를 해 볼 수 있게 열려 있는 환경, 본인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김재경, 여, 사례 19)

6) 결과

결과는 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나타나게 된 최종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결과 범주는 '달라진 대학생활에 대처'였다. 입학 후 두 달 여의 생활을 통해 낯선 대학 생활을 몸과 마음으로 실감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각자가 마주한 전환 과업에 대처하게 되었다. 8주 정도의 수업에 참여한 후 맞이하게 된 중간고사를 경험한 후 나름대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각 과목마다 조금씩 다른 시험유형과 그러한 시험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들쭉날쭉한 시간표 때문에 고등학교 때의 규칙적인 생활에 비해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수업에 빠지는 일도 있었고, 참석하더라도 출책(출석체크)에만 목적을 두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 내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오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는 고등학교 때의 관계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친구로서의 순수한 만남보다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대학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단정 짓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대학생으로의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서로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라 해석되었다.

생활면에서도 자유로운 대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입생들에게 익숙해졌다. 부모님을 떠나 홀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맞춰 변화하였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사람들 간의 적절한 거리 두기를 통

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입학 초 공간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걱정을 하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패턴이나 사고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초기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었다. 너무 튀어서 아사(아웃사이다)가 되지 않기 위해 남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어울린다거나, 때로는 마시기 싫은 술도 마시고, 가보고 싶지 않은 곳으로 친구를 따라 간다거나, 놀고 싶지 않은데 어울려 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이러한 행동들이 강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한다기 보다는 나 스스로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곧 대학이라는 곳에 적응하는 첫걸음, 즉 대학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시험 보고 나서 알았어요.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한미현, 여, 사례 31)

대충 교수님들 뭐 원하시는지 알고 뭐 설명하시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감이 왔어요. 과목마다 찾아가야겠어요. 처음엔 몰라서 그렇지 하다보면 알게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김연경, 여, 사례 17)

아무래도 저 혼자보다는 애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서로 모르는 걸 알려주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경험한 선배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부족한 점을 동기가 알려줄 수도 있고 동기가 부족한 것을 제가 알려줄 수도 있고.. 어쨌든 고등학교 공부와 격차가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권희성, 남, 사례 2)

쭉 쉬다가 1시간 수업 듣는단 말이에요. 쭉 쉬는 패턴이 그대로 왔다가 그래서 하기 싫고.. 차라리 하루에 몰아서 들어서 이걸 적응시키면 되는데.. 하루에 한 두 개씩 짧게 짧게 들으면 나태해져요 되게.. (고준경, 여, 사례 14)

수업에 지각하거나 빠진 적도 많았어요. 수업이 1, 7, 8교시인데 1교시 하고 기숙사 와서 자다보면 7, 8교시 못 가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 졸려서.. (이해성, 남, 사례 9)

처음에는 그냥 약간 영경이 말대로 대학 동기와 친구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딱히 차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얘기 많이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친구와 차이가 경험.. 같이 지나온 정도의 차이.. 추억을 많이 공유하고 안 하고의 차이.. 앞으로 계속 지내다보면 동기가 아니라 친구가 될 거 같아요. (황채성, 남, 사례 12)

혼자 살면 아플 때 대처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약도 갖다 놓고.. 집에 약도 없거든요. 엄마가 빨래 넣어주고 개주고 하던 것도 이제 제가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나를 규칙적으로 살았지만 이런 일은 안 했는데.. 이제 대학생 되니까 청소도 알아서 해야 되고.. 방도 혼자 막 닦고, 설거지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힘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혼자 사니까 빨래가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만 했어요. (홍혜경, 여, 사례 32)

룸메랑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벽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방법도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을 그어 넣고 그 선만 안 넘으면 원만하게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박현성, 남, 사례 7)

공강일 때 같이 공강인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게..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도 중간에 시간이 비면 놓고 다시 공부하고 그런 게 가장 대학생답지 않을까? (김기성, 남, 사례 4)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 핵심 범주와 전환 유형

1) 핵심 범주 도출

근거이론 방법의 코딩 절차에 따라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핵심 범주를 생성하였다. 선택코딩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는 '낯설지만 받아들인 세계, 새로운 도전'으로 요약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입학 후 대학 생활을 경험하면서 고등학교 때 상상했던 대학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라진 학업, 인간관계, 생활에서 요구되는 변화들 중에는 난생 처음 겪는 일들도 있었고 적절하게 대처하기에 어려운 과업들도 있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했고 성공적인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속된 학과의 분위기와 선배 및 교수의 지원, 학교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받으며 전환 자료 수집, 전환 모방, 전환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 신입생들은 학업에서의 변화,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생활에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때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므로 '낯설지만 받아들인 세계, 새로운 도전'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환 유형

축코딩에서 나타난 대학신입생들의 첫 학기 전환 경험은 10개의 범주에 걸쳐 12개의 속성과 27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전환 경험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가설적 유형과 면담 사례들을 반복적 비교분석한 결과, 대학신입생들의 전환 경험에는 '나홀로 소극 전환형', '나홀로 적극 전환형', '더불어 적극 전환형', '더불어 적당히 동조형', '선별적 전환형', '표류형'의 6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0가지 범주의 속성에 따른 각 유형의 특징은 표 4와 같다. 유형 구분 과정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와 대학환경의 차이 인식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높은 편이었으며, 원인 조건인 성공적인 대학생 기준, 개입 조건인 학과의 특성과 교수, 선배의 지원,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이 전환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성공적인 대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기주도적 동기와 주변에서 주어

지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나홀로 소극 전환형

‘나홀로 소극 전환형’의 신입생들은 성공적인 대학생이 되고 싶은 자기주도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소속된 학과로부터, 교수 및 선배로부터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그다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환에 대한 동기가 비교적 약한 편이었고, 전환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전환에 필요한 전략을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었고, 전환 이행에서 소극적인 편이었다.

〈표 4〉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으로의 전환 경험 유형

유형	나홀로 소극 전환형	나홀로 적극 전환형	더불어 적극 전환형	더불어 적당히 동조형	선별적 전환형	표류형
성공적인 대학생 기준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고등학교와 대학 차이 인식	영역 따라 크거나 작음	모든 영역 큼	모든 영역 큼	모든 영역 큼	영역 따라 크거나 작음	모든 영역 큼
전환 동기 형성	약함	강함	강함	약함	강함	강함
학과의 특성	전환 촉진 약	전환 촉진 약	전환 촉진 강	전환 촉진 강	전환 촉진 중간	전환 촉진 약
교수, 선배 지원	부족	부족	상호작용적 지원	상호작용적 지원	중간	중간
대학생활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못 함
전환 정보 수집	불충분	중간 정도	충분	충분	충분	불충분
전환 모방	약함	약함	강함	강함	약함	강함
개인 전환 전략	적용 부분적	적용 부분적	적용 성공적	적용 어려움	적용 성공적	적용 어려움
달라진 대학생활 대처	소극적 이행	적극적 이행	적극적 이행	소극적 이행	선별적 이행	소극적 이행

박재성은 이 유형에 가까운 학생으로, 수능 점수에 맞춰 학과 및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하였으나 대학생이 된 후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대학 입학 후 바뀐 환경에 대하여 생활과 인간관계 면에서는 고등학교와 조금 달라졌지만 수업은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여겼다. 학과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고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강의실과 기숙사만을 오가며 주로 룸메이트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과 특성상 교수나 선배들로부터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히 닳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 대학생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

저는 수업 끝나면 거의 기숙사 들어가서 쉬고, 학교를 그다지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요. 그냥 기숙사에 쫓박혀서.. 인간관계에서는 한 두명에 만족하고 룸메랑 친해요. 아직 전공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일단 제가 ○○○○학관데 그냥 □□□□나 ○○○○○○학 배우면서 교수님이 잠깐잠깐 꺼내는 이야기 말고는 아직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 진 그냥 생각 좀.. 저는 계획 없어요. 제가 계획 없이 사는 성격이라서.. 대학에 와서 계획 없이 사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직까진 울타리 안이니까요.

(2) 나홀로 적극 전환형

‘나홀로 적극 전환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성공적인 대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기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업, 인간관계, 생활의 영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으로의 전환 동기가 강한 편이었지만 소속된 학과가 전환을 촉진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교수 및 선배들의 지원도 부족한 편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하고 있었으나 주변에 전환을 모방할 동기나 선배가 있지는 않았고 전환에 필요한 전략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전환 이행을 나타내고 있었다. 권희성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와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하였고 고등학교 때까지의 부모님 집을 떠나 대학이 있는 대도시 캠퍼스 외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전환하려는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달라진 대학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환을 이루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주로 혼자서 열심히 대학생활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형이었다.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에 개인적인 시간 투자하는 거는 지금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잘 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게.. 다른 친구들이 다 공부하니까 저만 놀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학점 챙기기가 가장 큰 목표예요. 전 아예 그냥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학점을 잘 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거 잘 따고.. 지금 국가장학금도 받고 있는데 그거 학점 안 되면 못 받으니까 그걸 또 챙겨서 받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일단 바뀐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 적용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3) 더불어 적극 전환형

‘더불어 적극 전환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성공적인 대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기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속된 학과의 특성상 신입

생들의 전환에 도움을 주는 촉진적 분위기였으며 교수 및 선배들과의 상호작용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은 상태였다. 이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으로의 전환 동기가 강한 편이었고,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있었으며 주변 동기나 선배를 보면서 전환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한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수립한 전환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키는 등 달라진 대학환경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김재경은 고등학교 때까지 머물던 도시에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지만 부모님 집을 떠나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학과와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학과 특성상 신입생 동기들과 선배, 담당 교수들을 만나는 교류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기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대학생활에서의 전환 과업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전환 행동을 모방하고 싶은 선배도 보면서 대학생으로의 전환에서 자기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기준을 세우고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저는 오히려 여기 와서 외롭다는 생각을 더 안하게 되었어요. 저희 과가 약간 과제하고 뭐 하느라 푹푹 묻혀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놀러 갈 때도 보통 동기들이랑 놀러가고..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이 더 줄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뭔가.. 지금도 경쟁이긴 한데.. 지금은 서로 도와주면서 경쟁하는 느낌이 들고.. 그 때(고등학교)는 진짜 애가 이거 하면 어.. 나도 저거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친구보다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뜻이 같은 동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그 선배는 자기가 하는 거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맞는가 같은.. 결과물은 틀려도 할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시간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결과물도 잘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그것보다 좀 더 많아요.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4) 더불어 적당히 동조형

‘더불어 적당히 동조형’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으로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독립적이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을 대체로 따르는 편이었다. 대학입학 후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대학생으로의 전환 동기는 강한 편이었다. 소속된 학과의 특성상 신입생들의 전환에 도움을 주는 촉진적 분위기였으며 교수 및 선배들과의 상호작용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높은 편이었다. 대학생으로의 전환 동기도 강한 편이었고,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있었으며 주변 동기나 선배를 보면서 전환

을 모방하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의 전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전략을 찾아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달라진 대학 환경에 대처하려는 전환 행동에서 수업이나 인간관계를 위한 모임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전환하기보다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히 동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안지성은 앞서 ‘더불어 적극 전환형’의 사례였던 김재경과 같은 과 동기 신입생이었다. 성공적인 대학생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기주관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학과의 특성상 신입생 동기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교수나 선배와의 교류도 많은 편이었다. 스스로 자신이 잘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안지성의 학업과 인간관계, 생활은 김재경과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과제나 학점 관리, 인간관계 면에서 전략이 다소 부족해보였으며 바쁜 학과 스케줄로 인해 마음껏 놀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였다. 생활 관리에서 자기 기준이나 확신이 부족하였고 책임감 이행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대학생으로의 전환 과업을 수행한다기보다 주변의 분위기에 맞추다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습득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술 마시면 죽어서.. 맨날 맨날 많이 먹어서 필름이 끊겨서.. 이제 부모님이 안 깨워주셔서.. 고등학교 때는 깨워주셨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부모님이 덜 간섭하셔요.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게 맞나 하는 걱정도 되요. 집에 혼자 누워 있으면 할 거 없고 하면 그냥 00실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느낌.. 감정 관리 같은 거.. 어 막 오래 같이 있으니까.. 짜증나도 짜증나는 티 내면 안 되고.. 고등학교 때 친구는 1년 지나면 반이 바뀌지만 대학 친구는 4~5년을 만나니까.. 과제를 만들다가 잘못하면 엄청 짜증나고 그럼 다 없애고 다시 하고 해요. 그런 활동을 할 거라고 알고는 왔는데... 재미있는데 생각처럼 똑딱똑딱 안되면.. 그런 스킬은 앞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전 그냥 제가 제 생각만큼 놀지 못한 아쉬움? 다른 학과에 비해.. 툴툴이는 놀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서 놀자, 어디 간다든가 이런 크게크게 노는 게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는거죠.

(5) 선별적 전환형

‘선별적 전환형’들은 성공적인 대학생인 기준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학생으로의 전환 동기는 강한 편이었다. 학과는 중간 정도의 전환 촉진 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 교수 및 선배로부터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었다. 대부분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전환 정보는 충분히 수집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전환을 모방하고자 하는 마음

은 그다지 없었다. 나름대로 필요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별적 전환형’은 전환 동기가 강한 편이고 주변의 지원도 어느 정도 주어지며 전환 전략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홀로 소극 전환형’과 차이가 있었다. 이 유형의 사례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환만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이행하였다. 황채성은 학과 모임에서 동기, 선배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아리에도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대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적당히 즐겁게, 여유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즐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 인간관계, 생활면에서 균형을 맞추기보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선택적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놀 때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놀았고, 공부는 안 해서 그렇지 필요할 땐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으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기준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기숙사 생활이요. 그냥 많이 적응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줘요. 룸메이트랑은 그냥 별다른 말없이. 왔어 이정도만 하고 안부 정도만 묻고... 공장 시간엔 놀때 그냥 놀아요. 놀때 다른 건 생각 안해요. 저는 어차피 군대 가기 전까진 그냥 충분히 즐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과 공부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직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공부라고 별다른 건 없는 거 같고 시간을 투자 안 한 거거든요. 저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저는 그냥 모르겠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인 것 같아서.. 공부만 하는 건 대학생이 아니에요. 놀아봐야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점이 안 나오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열심히 살고.. 그러나 내가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지.. 지향점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6) 표류형

‘표류형’은 성공적인 대학생 기준이 타인의존적인 편이어서 대학생으로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었다. 대학입학 후 학업, 인간관계, 생활의 영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대학생으로 전환하고 싶은 동기도 강한 편이었다. 소속된 학과가 전환을 촉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지만 교수 및 선배로부터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신입생들은 대학생살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등 대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환에 필

요한 정보들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동기나 선배들을 보며 이상적인 전환을 모방하고 싶어하였다. 자신에게 필요한 전환 전략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라진 대학 생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전환을 원하지만 자기만의 주관 없이 전환 전략이 부족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선경은 점수에 맞춰 학과를 지원하였으며 자신이 진학하게 된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졸업 후 어느 방향으로 취업하게 되는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학하였다. 학과에 잘 적응해서 대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태도와 주관이 부족한 편이었다. 면담 당시 학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구조적으로 친해질 수 없는 수업과 학과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적응하지 못 하게 된 것이라 자평하고 있었다. 자신과는 달리 선배들과 친해져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동기를 보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부러워만 하였다. 대학입학 후 수능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대학생으로서의 즐거움과 재미는 별로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싶은 강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변을 배회하며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저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대학이.. 그냥 로망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재미없는데.. 수업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교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튕겨나가요.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나오면 넘어가긴 한데 쌓여요. 애들도 잘 모르니까(낮선 아이들이니까) 고등학교 때는 다 친하니까 발표하는 것도 모르는 거 막 물어볼 수 있는데 동진데도 눈치 보여서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따로 찾아가기도 그렇고.. 저는 대학 사람들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취하는 애들이 성공한 것 같아요. 통금 없고 선배들이 연락하면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사랑받는 거죠. 나가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대학생이 되려면 족보 받기를 성공적으로 해야 해요. 작년으로 돌려야 되요. 저는 다른 과 가고 싶어요. 더 재미있는 과가 많아 보여요. 다른 애들은 다 재밌어 보이는데..

IV. 논의와 제언

본 연구는 대학 첫 학기를 적응의 관점이 아닌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의 신입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학생활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입학 후 두 달 동안 대학생으로서의 전환 경험과 이에 영향을 주는 조건, 경험의 유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은 대학생활적응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신입생들이 입학 후 첫

학기 주요 사건 해결에 필요한 과업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얼마나 수립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학신입생을 대학 적응의 수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 위주의 표면적 이해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수준의 적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적응에 이르는 과정과 전환기적 대처 행동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주요 사건들에 대처하는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적응의 목표는 도달 여부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이다. 적응의 표준을 정해놓고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지향적 관점을 지양하고 신입생들의 상황과 역량, 필요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적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의 관점에서 적응을 이해한다는 것은, 적응이라는 난제를 신입생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적응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을 위한 상담이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전환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환 과업을 이해하여 동기를 형성하고,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변화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며, 적응이 필요한 각 영역에서 실행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즉각적이면서 좀 더 쉽게 적응을 완성할 수 있다. 이는 곧 ‘적응을 잘 하여야 한다’는 암묵적이면서 당위적인 규범이나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조바심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순차적인 질적 변화의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대학생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전환의 관점은 적응에 수반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의 차원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들이 입학 후 실제로 부딪힌 대학 환경은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 인간관계, 생활면에서 달랐고 특히 학업 면에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였다. 개념 반복과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 길들여져 있던 신입생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업 방식 및 과제, 과목마다 다른 평가 방식, 자율적인 수업 참여 및 학습 습관 형성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수업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시험 문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등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인간관계에서는 고등학교 때처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학생이라면 모름지기 필요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전환은 학업적, 인간관계 전환보다 비교적 조기에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집에서 통학하는 신입생들에 비해 기숙사나 자취를 해야 하는 경우 수직적 전환과 더불어 수평적 전환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관리와 시간관리 면에서 더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전보라와 윤소정(2017)의 연구에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학업, 인간관계, 생활로 인해 자율성과 책임감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달라진 수업 방식, 친구, 선배, 교수와의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설명한 류

혜숙과 조형숙(2008)의 연구와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Adams와 Spencer(1988)가 제시한 바대로 전환해야 할 과업이 새로울수록, 전환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할수록, 전환해야 할 개수가 많을수록 전환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설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기숙사 거주나 자취를 하게 된 학생들이 생활면에서 이전과 더 큰 차이를 인식하고 전환을 더 어려워했던 것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김은주와 김민규(2014), 조윤주(2010)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대학생활에 대한 입학 전의 기대와 입학 후 현실 간의 격차가 클수록 대학신입생의 전환은 더 어려워졌다(Briggs et al., 2012; Smith & Wertlieb, 2005). 전환에는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세계가 낯설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직접 그 상황에 처하여 차이를 겪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전환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자신이 전환하였음을, 변화를 겪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서야 자각하게 될 수도 있다. 비록 어떤 전환을 겪게 될 것인지 내용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전환의 종류와 전환하게 될 환경,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입학 전 정보 탐색을 통해 전환 과업을 이해하고 자신이 맞춰야 할 대상, 즉 대학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전환의 전 후 변화를 알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처럼 준비 없이 대학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과의 특성, 재학생 수, 1학년 1학기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수, 수강신청 참여 여부, 기숙사나 자취 여부,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 등을 고려하여 심리적 및 물리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전환 경험의 분석에서 도출된 전환 유형들은 전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속성과 차원에 의해 다양한 전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업, 인간관계,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대학입학 후 초기 주요 사건과 관련된 전환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인지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전환 유형을 파악하고 있으면, 전환 지원을 요청할 때 필요한 요소별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 유형에 대한 이해는 신입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길이며, 신입생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독립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주어진 학기마다의 전환 과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생들이 자신의 전환 유형별로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과업은 무엇이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얻게 될 때 대학생활적응을 향해 좀 더 쉬운 걸음으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첫 학기 주요 사건과 전환 과업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지원받아 Hudson(1999)이 제안한 가벼운 소전환(mini-transition)들을 연습할 수 있다면 신입생들의 전환과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전환

시도, 전환 성공, 전환 누적, 전환조정, 재전환, 전환 정착이 모여 몇 개의 전환이 완성되고, 완성된 몇 개의 전환이 모여 1학기 적응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환과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고, 대학 적응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전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의 확장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신입생 프로그램이 신입생들의 전환 유형과 필요에 따라 내용과 시기가 다양화 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대학 오리엔테이션, 단과대학 및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예비대학, 입학 전 학습법 워크숍, 신입생 아카데미, 신입생 입학 전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등은 신입생들의 필요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주춧돌이 준비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시기나 순서에서도 통합 운영되지 않고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의 사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학신입생들의 전환 경험에는 각기 다른 유형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오리엔테이션의 시기와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신입생들의 전환 유형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학생 개인에게 최적화와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입생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은 대학 차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에서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며, 입학 후에도 전환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특히 대학입학 후 신입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업적 및 사회적 전환 과업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전환 과정에서 미리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이나 시간관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단순한 정보 제공과 친목 위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신입생들이 실감하게 될 전환의 과업을 단과대학이나 학과별, 월별, 시기별로 알게 함으로써 학사일정과 전환 단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과 선배들의 전환 성공 사례를 소개하거나 단계별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진다면 신입생들이 전환에 필요한 개인별 전환 및 전환조정 전략을 찾고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알려주어 '전환'이라는 낯선 과업에 신입생이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과정 내 필수 전환 및 선택 전환을 설정하고 교양 및 전공 교육을 통해 전환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요즘 각 대학마다 대학의 교육상에 일치하는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근호·곽영순·이승미·최정순, 2012; 진미석·손유미·주휘정, 2011). 각 대학은 재학생 등록률을 향상시키고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대학생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핵심역량 뿐 아니라 대학생활의 주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전환 과업의 목록과 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수강 과목에서 목표한 전환들이 달성

되었는지, 전환이 부족한 항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과와 전공, 학기와 학년,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직 전환이 되지 못한 부분에서 재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고학년이 될 경우 더욱 중요해지는 전공 영역에서의 전환과 취업생으로의 전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대학입학 후 신입생들이 당면하게 되는 과업의 영역에 따라 학업, 인간관계, 일상생활에서의 전환의 시급함과 경중이 다를 수 있으며, 전환의 유형도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고 각 영역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영역별 전환의 시급함과 난이도, 전환 유형의 변화 추이가 반영된, 좀 더 세분화된 유형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신입생들의 적응 영역별 전환을 프로파일로 기록하고 분석한다면 전환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전환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복영 (1999). 미국의 대학교육. 정영근·구자익·주은희·정미리·김복영·윤정혁·길지현 공저.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대학교육** (pp. 144-206). 서울: 문음사.
- 김송희 (2012). **세계화 속의 한국교육**. 서울: 지식공감.
- 김은주·김민규 (2014). 대학신입생의 자율성과 유능성 및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청소년학연구**, 21(5), 29-56.
- 류혜숙·조형숙 (2008).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대학 입문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249-276.
- 유경희·김종경 (2016). 적응프로그램 제언을 위한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관련 문헌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580-591.
- 이근호·곽영순·이승미·최정순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12-4.
- 이길상 (2000). 근대 교육주체의 특성과 한국 교육의 식민성. **한국교육사학**, 22(2), 51-68.
- 이동성·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전보라·윤소정 (2017). 대학 신입생, 그들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대학생활적응 경험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3), 731-742.
- 정동영 (2014). 지적장애학생의 전환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법 탐색. **특수교육교과**

- 교육연구, 7(1), 1-25.
- 정영근 (1999). 독일의 대학교육. 정영근 · 구자억 · 주은희 · 정미리 · 김복영 · 윤정혁 · 김지현 공저.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대학교육** (pp. 264-331). 서울: 문음사.
- 조윤경 (2003). 중도장애 학생의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계획과 실행 과정 및 과제. **직업재활연구**, 13(1), 235-260.
- 조윤주 (2010).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의 적응성이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7-26.
- 진미석 · 손유미 · 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 홍송이 (2018). **대학신입생의 첫 학기 전환 과정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강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홍송이 · 임성택 (2018). 대학신입생의 첫 학기 전환 유형과 통시적 변화 분석. **교육학연구**, 56(1), 47-84.
- 홍영숙 (2016). 대학 편입학을 경험한 두 대학생이 살아낸 삶의 이야기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4(2), 99-126.
- Adams, J. D., & Spencer, S. A. (1998). People in Transi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61-63.
- Balduf, M. (2009). Under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20(2), 274-294.
- Brammer, L. (1991). *How to cope with life transitions: The challenge of personal change*. N.Y.: Hemisphere.
- Bridge, W. (2004). *Transitions: Making sense of life's changes*. Cambridge, M.A.: DaCapo Press.
- Briggs, A., Clark, J., & Hall, I. (2012). Building bridges: understanding student transition to university. *Quality in Higher Education*, 1, 1-19.
- Brown, N., & Adam, A. (2010). *UTAS First Year and Transition Framework*. http://www.utas.edu.au/_data/assets/pdf_file/0020/511058/FY-and-Transition-Framework.pdf.
- Bryant, A., & Charmaz, K. (2010).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s and Practices. In A. Bryant, & K. Charmaz(Eds.),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pp. 1-28). SAGE Publications Ltd.
- Charmaz, K. (2000). Grounded Theory.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509-535). CA: Sage Publications.
- Charmaz, K. (2013). 박현선 · 이상균 · 이채원(역).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서울: 학지사.
- Cherif, A. H., & Wideen, M. F. (1992). The Problems of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University Science. *Journal of the British Columbia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36(1), 10-18.
- Creswell, J. W. (2015). 조홍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역).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Glaser, B. G., & Strauss, A. L. (2011). 이병식 · 박상욱 · 김사훈(역). **근거 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 전략**. 서울: 학지사.
- Hudson, F. M. (1999). *The adult years: Mastering the art of self renewal*. CA: Jossey Bass.
- Kelle, U. (2010). The Development of Categories: Different Approaches in Grounded Theory. In A. Bryant, & K. Charmaz (Eds.),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pp. 191-213). SAGE Publications Ltd.
- Lizzio, A. (2006). *Designing an Orientation and Transition Strategies for Commencing Students: A conceptual summary of research and practice*, https://www.griffith.edu.au/__data/assets/pdf_file/0008/51875/Alfs-5-Senors-Paper-FYE-Project,-2006.pdf.
- Marland, M. (2003).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University: Who prepares whom, when, and how?, *Arts &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2(2), 201-211.
- Morse, J. M. (2010). Sampling in Grounded Theorys. In A. Bryant, & K. Charmaz(Eds.),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pp. 229-244). SAGE Publications Ltd.
- Nair, C. S., & Fisher, D. L. (2000). Transition from Senior Secondary to Higher Education: A Learning Environment Perspectiv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0(4), 435-450.
- Smith, J. S., & Wertlieb, E. C. (2005). Do First-Year College Students' Expectations Align with their First-Year Experiences? *NASPA Journal*, 42(2), 153-174.
- Strauss, A., & Corbin, J. (2001). 신경림(역).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Tinnesz, C. G., Ahuna, K. H., & Kiener, M. (2006). Toward College Success: Internalizing Active and Dynamic Strategies. *College Teaching*, 54(4), 302-306.
- Upcraft, M. L., Gardner, J. N., & Barefoot, B. O. (2009). 이지현(역). **신입생 교육 - 도전과 지원**. 서울: 학이당.
- Wilcox, P., Winn, S., & Fyvie-Gauld, M. (2005). 'It was nothing to do with the university, it was just the people':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year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0(6), 707-722.
- Yin, R. K. (2013). 박지연 · 이숙향 · 김남희(역).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서울: 학지사.

Abstracts

The transition experiences and types of the first-year college students: grounded theory approach

Hong, Song-Ee · Lim, Sung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types of the first semester transitions from secondary to college education of the first-year college students in post-adolescences over various areas of university life.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by Strauss and Corbin(2001) was used in this qualitative investigation. In order to collect qualitative dat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 interviewees including 12 male students and 20 female students, who were entering university. 165 concepts, 37 subcategories, and 10 categories were extracted by open and axial coding. 12 attributes and 27 dimensions were found across the categories. As a result of axial coding, 'successful college student standards' category was derived as a causal conditions and 'awareness of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environment' as a context conditions. The central phenomena was 'motivation to transition', and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characteristics of department', 'support of professor and seniority', and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Interactional strategies were 'collecting the information for transition', 'imitating transition', and 'establishing personal transition strategies'. Finally, 'coping with a different university life' was derived as a consequences category. The core category derived from selective coding was named as 'new challenges with strange roles'. Six types of transition were determined by the combinations of the levels of motivation of trans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artment, and significant others' supports: 'passive and individualistic transition', 'active and individualistic transition', 'active and collective transition', 'conforming transition', 'partial transition', 'drifting'. Thes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aking a transitional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of early college experiences is necessary to help college students adapt successfully to college world.

Key words: First-Year College students, Post-Adolescents, Transition, Grounded Theory, Adaptation to College

투고일자: 2018. 04. 29 / 심사일자: 2018. 06. 07 / 최종 게재확정일자: 2018. 06. 30

* Kangwon National University